

민주화의 이행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색채혁명

유영근, 정지운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 I. 서론
 - II.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 1. 민주화 이행유형과 민주적 공고화의 상관관계
 - 1) 민주주의의 위상과 민주화 이행 유형에 대한 논의
 - 2)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
 - 2.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이행론
 - 1)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이행론 논의 배경
 - 2)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의 분석을 위한 비공식 정치과정
 - 3)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의 한계점
 - III. 색채혁명의 발생배경과 공통점
 - 1. 색채혁명의 발생배경
 - 1) 그루지야의 장미 혁명
 - 2)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 3)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
 - 2. 색채혁명의 공통점
 - IV. 민주화 이행론적 관점에서의 색채혁명
 - 1. 이행론적 입장에서 색채혁명 분석
 - 2. 이행론적 입장에서 색채혁명의 한계점
 - V. 결론
- 참고문헌

한글 초록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던 15개국은 정치적 지각변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한 3개국에서 일어난 색채혁명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전환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구소련 국가들의 정치적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색채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모은 3개국에 대해 민주화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에 입각해 색채혁명을 조명해 보았으며, 특히, 민주화 이행론 성립의 5가지 주된 전제조건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로의 이행 여부와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주의체제의 권위주의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이 민주주의로 교체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색채혁명에 대한 분석은 과거 냉전시기 세계를 양분하였던 두 체제에 대한 연결 고리로써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I. 서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체제를 유지해 오던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세계의 정치경제적 지각변동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세력 하에 놓였던 14개 국가들은 독립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Nation-State Building에 들어가게 된다.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던 시기를 겪었던 이들 국가들은 낙후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주력해야만 했으며, 이런 가운데 정치적 안정 역시 도모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재 구소련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타개하는 방식은 각 국가의 역사적, 민족적 토대 위에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맞이하고, 여기에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겪으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케이스가 바로 색채혁명이라 할 수 있겠다.

색채혁명이 일어난 3국(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혁명 발생 배경은 국가들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문제에 의해 일어났다. 그러나 혁명 간의 공통성 역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우리는 일련의 혁명들과 더불어 혁명이후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하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탈피한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또한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직 혁명과 같은 큰 사회적 변혁을 겪지 않은 구소련 국가들의 향방에 대하여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색채혁명 국가들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향후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올바른 잣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에서 색채혁명에 접근하여 타당성을 가늠해 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색채혁명 국가들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우선 탈사회주의의 민주주의 이행에 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색채혁명의 일반적인 발생 배경에 관해 살펴보고 공통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4장에서 색채혁명에 대한 이행론적 접근과 더불어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II.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1. 민주화 이행유형과 민주적 공고화의 상관관계

1) 민주주의의 위상과 민주화 이행 유형에 대한 논의

최근 3~4세기동안 정치학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성장이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제 3의 물결(The third democratizing wave)'도 이런 민주주의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여 남부유럽을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남아메리카, 남부유럽, 남부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지역 국가들 등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제 3의 민주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

주의로의 이행이 당연한 역사적 귀결로 생각하게 하였다.²⁴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권위주의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 발로라(Baloyra)는 이행의 유형을 초기-내부적, 지연된-외부적, 지연된-내부적, 후기-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⁴¹⁾ 스테판(Stepan. Alfred)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례를 통하여 ‘재민주화의 경로’를 외부의 재정복에 의한 내부 민주주의의 복구, 내부 민주주의의 재구성, 외부 감독아래에서의 민주주의 설치, 권위주의 엘리트 주도아래에서의 민주화, 사회적 변화에 의한 이행, 정당과의 협약에 의한 이행, 정당에 의해 통합되어 조직된 폭력적 반란, 막스 혁명의 8가지로 구분하였다.²⁴²⁾ 셰어(Share. Donald)는 스테판이 8가지로 구분한 것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²⁴³⁾ <표-1>은 셰어가 두 차원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표-1>. 권위주의 정권의 주도여부와 민주화 속도에 따른 이행 유형²⁴⁴⁾

		권위주의정권의 주도여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들이 주도	권위주의정권에 저항
민주화 속도	점진적 이행	점진적민주화 (Incremental democratization)	혁명적 투쟁을 통한 이행 (Transition through revolutionary struggle)
	신속한 이행	거래를 통한 이행 (Transition through transaction)	단절을 통한 이행 (Transition through rupture)

<표-1>에서 점진적 민주화는 초기 민주주의 국가들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에는 존재가능성이 낮고,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해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거래를 통한 이행과 단절을 통한 이행의 존재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

민주화 이행과 민주적 공고화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먼저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야한다.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은 권위주의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접근하는 변화를 의미하고, 민주적 공고화(consolidation)는 민주화 이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한 제도 등이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이 확립되었다고 간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민주화 이행은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240)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 Avon Books. p. 48~50. 후쿠야마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1790년에는 단지 3개국(미국, 스위스, 프랑스)에 불과하였으나, 1900년에는 13개국, 1919년에는 25개국, 1960년에는 36개국, 1990년에는 61개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믿었다.

241) Baloyra, Enrique ed. 1987. Comparing New Democracies: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Mediterranean Europe and the Southern Cone. Boulder : West-view. p. 9~52

242) Stepan. Alfred. 1986. "Paths toward Redemocratiz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p. 65~84

243) Share. Donald 1987.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Transition through Transa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9, no. 4, 529~530

244) Scott Mainwaring, et. al.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p. 320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민주적 공고화는 이행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²⁴⁵⁾

민주화 이행이론과 공고화이론은 주로 달이 주장한 ‘다두정’(polyarchy)과 자유선거를 강조하는 슈페터(Schumpeter, Joseph)의 대의민주주의 관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²⁴⁶⁾ 달의 견해에 의하면 근대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다두정은 공정한 경쟁선거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의 시스템에 기초한다.²⁴⁷⁾

<표-2> 달의 정치체제 유형

		참여	
		적다	많다
경쟁	많다	Competitive Oligarchy	Poliarchy
	적다	Hegemony	Inclusive Hegemony

오도넬(O'Donnell, Guillermo)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다두정과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된 다두정을 구분한다. 오도넬은 비공식적 요소의 한 형태로 특수주의를 주장하면서, 신생 다두정에서 제도화되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밖에 없다는 공고화이론의 일반적인 주장들을 비판하였다.²⁴⁸⁾

헌팅턴(Huntington, Samuel)은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민주화 이행을 경험한 30여개 국가들에서의 정치가 무엇(what), 왜(why), 어떻게(how)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 3의 물결’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선거를 통한 국가지도자의 선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⁴⁹⁾ 헌팅턴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제 3의 물결을 촉진시킨 요소로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정통성 문제의 심화, 1960년대의 전 세계적 경제성장,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카톨릭의 반대움직임, 세계 강대국들의 정책변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외부 영향력, 초기 민주화 이행국가들의 움직임에 의한 가속화 효과,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민주화 이행이 공고화되느냐는 다음의 여섯 가지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과거에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는 국가는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둘째, 경제발전의 수준과 공고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인접 국가들의 영향력과 국제적인 환경이 공고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넷째, 제 3의 물결이 시작된 초기의 이행국가들에서는 국내적 변수가 공고화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후반에 시작된 국가들에서는 국제적인 환경과 가속화 효과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합의에 의한 평화적 이행의 경험이 폭력의 이행 경험보다 공고화에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정치엘리트와 국민들

245) Ethier, Diane ed. 1990.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London : the Macmillan Press. p. 4

246) 배정환,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공식 정치과정: 그 이론과 고찰, p. 7

247) Robert Dahl,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p. 220~221

248) Guillermo O'Donnell, 1996,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7 p. 34~51

249)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 Londo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6

이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겪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공고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²⁵⁰⁾ 헌팅턴의 정치엘리트와 국민의 태도에 더하여 행동규칙의 제도화와 민주적 규범을 고려하여 민주적 공고화에 대해 체계적인 정의를 시도한 연구자는 린즈와 스테판이다.

“헌법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정치가들은 이미 확립된 규범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하며, 이 규범을 침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당연시할 때 민주화는 유일한 게임의 규칙(The only game in town), 즉 공고화가 된다.”²⁵¹⁾

독일의 메르켈은 린즈(Linz, Juan)와 스테판의 포괄적인 정의를 발전시켜 각각의 차원에서 민주적 공고화의 진행과정이 시간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태도와 헌법 등 각각의 공고화 요소가 특정시점에 동시에 공고화로 나아가기는 하지만, 각각 다른 시점에 공고화가 완성된다는 것이다.²⁵²⁾

자카리아(Zakaria, Fareed)는 “비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주장하면서, 자유선거만 보장되면 민주적 공고화가 된다는 믿음을 비판하였다. 민주적 공고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자유선거뿐만 아니라 입헌주의도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입헌주의는 독립된 사법부,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법치행정 등의 법적인 제도를 통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나타낸다.²⁵³⁾

2.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이행론

1)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민주화 이행론 논의 배경

1980년대 말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아래에서 당이 지배권력을 독점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 이외의 어떠한 사회단체나 정치적 단체도 인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아래에서의 지나친 통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은 개혁정책을 취하게 되었는데, 동유럽 국가들에서 정치적 독점의 해체, 즉 민주화는 1985년 3월에 등장한 고르바초프로부터 시작되었다.²⁵⁴⁾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으로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 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Перестройка; 개혁)를 제시하였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종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체제의 전환과 정치적인 민주화로 이어지게 된다.²⁵⁵⁾ 이 전환은 정부통제에 의한 경제로부터 자본과 시장에 의한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정부에 대한 저항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요구들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250)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 Londo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p. 270~277

251) Juan Linz/ Alfred Stepan, 196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London: Johns Hopkins Univ. Press), p. 5

252) Wolfgang Merkel, 1996, "Theorien der Transformation. Die demokratische Konsolidierung postautoritärer Gesellschaften"

253) Fareed Zakaria, 1997,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254) 이흥균. 2007.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사회경제적 독점의 해체 과정,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255) Schopflin, P.A ,1990. The End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p. 3~16

이렇게 크게 두개의 전환으로 나뉜다. 이러한 체제전환을 탐구하기위한 주요한 방법론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행론 연구”가 예전의 소비에트학의 명맥을 사실상 이어가고 있다.²⁵⁶⁾ 비교정치학에서는 남아메리카 지역과 남부유럽 지역연구에서 고안된 “민주화 이행론” 또는 “민주적 공고화 이론”의 이론적 전제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²⁵⁷⁾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동유럽 지역의 이론적 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요구하였고,²⁵⁸⁾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다른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 이론적 논쟁이 발생하였다. 소비에트 연구와 관련이 없던 연구자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민주화 이행이론과 민주적 공고화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전략을 제시하였다.

“소비에트연구에서 벗어나 특정지역에 구애되지 않는 일반개념들을 활용하여 비교정치의 영역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²⁵⁹⁾

하지만 소비에트연구자들은 소비에트가 지닌 비교연구의 풍부한 전통을 밝히면서, 이행론 연구자들의 주장을 “학문적 제국주의”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²⁶⁰⁾

2)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의 분석을 위한 비공식 정치과정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²⁶¹⁾ 메르켈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비공식제도와 공식제도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불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정치과정이 비공식화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²⁶²⁾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인 비공식제도와 새로 적용된 민주적 공식제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입헌국가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전제에 따라 행위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지배엘리트의 합리적인 전략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민주주의체제와 달리 지배엘리트들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의 일부만이 지도자를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을 가졌다.²⁶³⁾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국민의 대부분이 정치에서 배제되었으며, ‘불쉐비키 헌법’, ‘행정적 시

256) Stephen F. Cohen. "Who Lost Russia?" The Nation. Vol. 267. No. 11 (October 12, 1998) p. 5

257) Philippe Schmitter with Terry Lynn Karl, 1994, "The conceptual travels of transitologists and consolidologists. How far to the east should they attempt to go," Slavic Review, Vol. 53, No. 1 p. 175-185

258) Klaus von Beyme, 1994, Systemwechsel in Osteuropa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p.35~39

259) Roger Markwick, 1996, "A Discipline in Transition? From Sovietology to 'Transit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2 p. 271

260) Valerie Bunce, 1995, "Should Transitologists Be Grounded?" Slavic Review, Vol. 54 p. 111~127

261) 배정환,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비공식 정치과정: 그 이론과 고찰, p. 14

262) Wolfgang Merkel/Aurel Croissant, 2000, "Illiberale Demokratien im Wechselspiel von formalen Institutionen und informellen Regeln,"

263) Philip Roeder, 1994 "Varieties of Post-Soviet Authoritarian Regimes," Post-Soviet Affairs, Vol 10 p. 62~63

장’, ‘블라트’와 같은 개념들이 비공식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블체비키 헌법은 로더(Roeder, Philip)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로 소련의 지배엘리트들이 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규정이었다.²⁶⁴ 블체비키 헌법은 블체비키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데서 만들어졌다. 소련공산당은 당중앙위원회에 그 권력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만 정치적 책임을 졌다. 이러한 소련의 정치체제는 노멘클라투라에서 기인하는데, 이에 의하면 소련의 간부를 임명하고 해임할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있어야 했다. 노멘클라투라 원칙은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단일성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그룹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독자적인 정책팀을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신주의 또는 정치적 후견주의로 불리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만연하게 되었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행정적 시장이란 개념은 이후에 탈사회주의의 정치발전을 소비에트와 탈소비에트 시대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²⁶⁵ 특정경제분야나 특정지역을 담당하는 정치엘리트들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분야나 지역을 집단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행정적 시장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적 시장의 역할로 소비에트 관료그룹들 사이에 자원이 분배·재분배 되었고, 관료그룹들이 소련공산당의 지역조직과 상응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행정적 시장은 지역적 틀 안에서 작동하였다. 이에 의하여 행정적 시장은 관료그룹과 연관되어 있던 지방의 위상을 높여주었다.²⁶⁶ 이 행정적 시장의 개념은 허프(Hough, Jerry)가 주장한 제도화된 다원주의(Institutionalized pluralism)의 개념과 비슷한 면이 있다. 지역적 조직차원에 중점을 둔 행정적 시장과는 달리 허프가 주장한 제도화된 다원주의는 지역적 조직차원보다는 수직적 경제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두 개념 모두 소련의 정치변화과정을 정치조직들 사이의 협력과 대립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²⁶⁷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회구조 속에 비공식적 거래관계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거래관계는 블라트라는 러시아어 단어에 잘 나타나 있다. 블라트는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절차, 즉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으로써, 중국의 판시와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레데노바(Ledeneva, Alena)는 블라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블라트는 결핍의 조건과 특권의 국가체제에서 ‘접근의 허가’를 교환하는 것이다. ‘접근의 허가’는 공공의 비용으로 제공된다. 이는 개인의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물질적 복지의 공식적 분배를 재조직한다. 블라트는 종종 공유, 도움, 우정 어린 지원, 상호협력 따위의 우정이나 안면이라는 것에 은폐되어 있다. 개인적 네트워크와 얽혀 블라트는 개인적 통로를 통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²⁶⁸

264) Philip Roeder, 1993,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p. 20~40

265) Simon Kordonskij, 1995, "The Structure of Economic Space in Post-Perestroika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Market," p. 157~ 204

266) Sergei Medvedev, "Post-Soviet Development. A Regional Interpretation," p. 9~11

267) Jerry Hough/Merle Rainsod, 1979,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Harvard Univ. Press,) p.547
허프는 서구에서 발전된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구소련체제의 비공식적 이익표출과 집약과정에 처음 적용하면서 “제도적” 또는 “제도화된”이라는 한정적 수식어를 덧붙였다.

268) Alena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Cambridge Univ. Press, 1988) p. 37

일자리와 필요한 소비재를 얻거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라트는 사회주의체제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이러한 블라트는 과도한 국가통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분배체제가 강요하는 구조적인 제약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대응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블라트는 공산주의체제가 지닌 기능적인 결함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3)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의 한계점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연속 선상에 놓여있는 복합적인 국면에 처해있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다. 그 현상의 하나로 권위적인 공산당에 의한 통치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구 지배계급이 민주주의로 변신하여 정치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당과 그 계승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재집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산당을 계승한 정당이 재집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가 등장한다.²⁶⁹⁾ 다당제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고 있는 동유럽에서는 민주화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를 정치·사회·경제적 독점의 결합에서 그 결합의 해체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유럽의 민주화는 제한적 민주화로 정의된다. 정치적 독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다시 이전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지배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권위주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색채혁명의 발생배경과 공통점

1. 색채혁명의 발생배경

1) 그루지야의 장미혁명(Революция роз)

구소련 붕괴 이후 첫 번째 민주선거로 선출된 감사후르디아(Гамсахурди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치와 대외정책의 실패는 결국 반대세력에 밀려 아르메니아로 도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등장한 세바르드나제(Шеварднадзе)는 타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정권을 공고히 하기에 이른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적 외교를 펼치는 방향으로 나아가 대외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세바르드나제는 민주주의를 국내정치 중심 틀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민주주의(pseudo-democracy)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정치 체제는 결국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제도 정비 및 발전을 저해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세바르드나제 측근을 중심으로 하

269) 이흥균. 2007.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사회경제적 독점의 해체 과정, 성공시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p. 137

여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이에 더하여 경제정책의 실패와 강권적 통치에 대하여 2000년 재선 이후부터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또한 차기정권을 목표로 한 정쟁의 움직임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사카쉬빌리(Саакашвили)와 국회의장 쥬바니아(Жваниа)는 세바르드나제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국내정계에서 세바르드나제의 구심력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바르드나제의 국제적 입지 역시 줄어들고 있었다. BTC송유관 건설과 러시아 군사기지 철수문제 같은 주요현안은 이미 1999년에 잠정적 해결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바르드나제의 레임덕 양상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이런 가운데 총선 다음날인 2003년 11월 3일, 그루지야 선관위는 집권당의 승리를 발표하게 된다. 야당 측은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이때부터 야당 측에 대중이 합세한 시위가 시작된다. 결국 세바르드나제는 사임하게 되고, 2004년 1월 4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사카쉬빌리는 그루지야의 대통령이 된다.

2)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Оранжевая Революция)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역사적 과정과 인종 분포에 따라서 5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⁷⁰⁾ 하지만 크게 나누어 드네프르강을 두고 동과 서로 나눌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의 역사적 골은 매우 깊다. 10세기 키예프 루시는 몽골에 의해 점령당하고 13~14세기 갈리치-볼리니 공국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갈리치는 폴란드에 볼리니는 리투아니아에 합병되었고, 1569년에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역이 폴란드의 지배하에 놓였다. 당시 폴란드는 카톨릭화 정책을 통하여 정교도들을 박해하였으며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의 지배에 반하여 1648년 독립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에는 이 전쟁에 개입한 모스크바 공국과 폴란드 사이에 이루어진 안드루소보 조약(1667년)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동서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세기 말 폴란드가 분할되면서 갈리치 지역은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맞보았으나 일시적이었고, 다시금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 합병되었던 갈리치 지역은 다시 폴란드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가 1939년 독일과 소련에 의한 폴란드 분할로 소련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분할의 역사를 지닌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비로소 통일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적 동서 갈등과 더불어 경제상황 역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서부지역과 공업 중심의 동부지역 간 빈부격차는 매우 커서 동부지역은 우크라이나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²⁷¹⁾

199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크라프츠크(Кравчук)와 전총리 쿠츠마(Кучма)의 대결이 벌어졌다. 크라프츠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더불어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들이고 반대 세

270) 슬라브 민족의 발생지인 키예프 중심의 중부지역, 러시아와 역사, 언어, 문화, 인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리코프와 돈바스의 동부지역, 유일한 자치공화국이며 러시아인 비율이 약 30%정도인 크림지역, 역사적으로 폴란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독립국가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족주의적 성향이 짙은 르비프 중심의 서부지역, 다양한 인종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적 분리 독립의 성향이 높은 남서부의 카르파티아 산악지역 및 체르니프치 지역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할구조” 박태성. 슬라브연구 제23권 2호 p.52

271)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 ‘거대한 체스판’ 유라시아 패권 싸움” 정우량의 월드워치 인물과 사상 2005.02 p.48

력을 친러 세력으로 몰아 정권을 차지하였으나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선의 쟁점은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경제개선이 차지하였다. 강력한 민족주의 양상은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반감을 샀고, 경제적으로 대러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중요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친러적 입장에 있던 쿠즈마는 동부지역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²⁷²⁾

이렇듯 동-서간 지역성이 뚜렷한 우크라이나에서 대선 결과의 의미는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고, 따라서 2004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은 오렌지 혁명 발생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2004년 10월 31일 대선이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동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여당의 야누코비치(Янукович)가 40.12%를 얻었고 서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야당측 유셴코(Ющенко)가 39.15%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과반수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11월 21일에 시행된 2차 투표에서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누코비치가 49.53%로 유셴코(46.66%)를 누르고 대선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되었고, 이때부터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유셴코 지지자들은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유셴코는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기에 이르고, 이에 대응하여 야누코비치 지지자들 역시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우크라이나는 혼란에 빠져든다. 결국 11월 26일을 고비로 여야 후보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12월 26일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3)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Лимонная ревалюция)²⁷³⁾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남부지방 특히, 페르가나 계곡의 주변지역에는 오랜 세월 우즈베크인들이 거주하였고, 이에 따라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베크인들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북부 지역은 카자흐족과 슬라브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며 북부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적 성향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²⁷⁴⁾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경제적 격차에 대한 남부 키르기스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남부 지역의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의 갈등은 심화되어 이미 1990년의 충돌로 인하여 천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⁷⁵⁾

북부출신 아카예프(Акаев)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더불어 아카예프의 측근들이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기업을 소유하고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실업문제, 농민들의 가난 등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남부지역 국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2월 27일 1차 총선과 3월 13일 2차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 총선 결과 75석의 총 의석 중 여당이 무려 59석을 차지하고 야당 의석은 6석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선언이 3월 14일 발표되자, 야당과 국제 선거감시단은 불법적인 투표권 매수와 언론매체 조작 등의 광범위한 선거부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선관위의 공식발표가 있는 다음날인 3월 15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

272) "Ukraine Under Kuchma: Back to 'Eurasia'?" RFE/RL Research Report. Vol.3 No.32(1994). p.10

273) 튜립혁명(Тюльпановая Революция)이라고도 칭함.

274) "중앙아시아 국제정치 이해" 장병옥 2007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243-244

275) "<러시아 초점> 키르기스스탄 사태,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가?" 이홍섭 2005. 4 월간 아태지역동향 p.12

발하였고, 3월 21일에는 반정부 시위대가 지방 정부청사를 장악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3월 24일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인 비쉬케크의 정부청사와 국영방송국을 점령하였고, 이에 따라 사태는 급변하여 아카예프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 색채혁명의 공통점

색채혁명의 가장 큰 공통점은 첫째, 부정선거를 빌미로 혁명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그루지야에서는 2003년 11월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어 시위가 일어났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 12월의 총선에서 야누코비치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혁명이 발생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2005년 2월과 3월의 총선에서 야당의 전체의석 75석 중 불과 6석만 차지하게 되자 선거부정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색채혁명이 일어난 3국에서는 모두 부정선거가 혁명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민중과 엘리트의 결합으로 인하여 체제가 전복되었다는 점이다. 그루지야의 장미혁명의 경우, 사카쉬빌리를 비롯한 야당과 학생운동 단체인 Kmara!가 국민들을 선동하여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장미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여 결국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역시, 빅토르 유셴코 후보와 티모셴코(Тимошенко)를 비롯한 그의 지지자들과 학생단체인 Pora가 국민들과 함께 재선거를 이끌어내 결국 정권을 잡았다. 키르기스스탄의 바키예프(Бакиев)를 앞세운 야당은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과 함께 비쉬케크의 정부청사와 국영방송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아카예프 대통령을 내쫓았다. 이와 같이 색채혁명은 엘리트와 민중의 결합으로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서방 세력의 혁명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루지야의 경우 서방 NGO인 소로스 재단(Soros Foundation)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민주주의 건설에 유고슬라비아의 체제 전복 사건에 대한 학습을 위하여 사카쉬빌리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유고슬라비아에 파견하였다. 2000년 유고슬라비아의 선거결과 조작으로 인한 밀로세비치 정권의 전복에 큰 역할을 했던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카쉬빌리 세력은 체제 전복에 대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에서 활동하였던 Otpor를 벤치마킹하여 학생시위단체 Kmara!를 결성하였고, 이는 그루지야 장미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²⁷⁶⁾ 이런 혁명과정에서 1995년부터 소로스의 지원을 받은 TV 채널 Rustavi-2 역시 시위기간 중 2003년 11월 선거당시 야당세력과 연합하여 국민들을 동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Rustavi-2는 과거 2001년도에 정부 및 세바르드나제 측근들의 부패문제를 다루어 방송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방송국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Kmara!가 결성되었던 것이고, 이후 혁명기간 중에도 Rustavi-2는 시사각각으로 선거 결과와 판이한 차이를 보이는 NGO들의 투표결과를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정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였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렌지 혁명 이전에 우크라이나 야당에 6천 5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선거 마케팅 기법을 전수해주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결성을 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민주주의 재단(NED)은 1997년부터 우크라이나 청년 550명을 선발해 정치적 교육을 시켰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청년 단체가 오렌지 혁명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Pora²⁷⁷⁾이다. 국립민주주의 재단을 비롯하여 국제공화주의 연구소(IRI), 국가민주주의 연

276) 이채문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007.2 p.73

277) ‘바로 이때’라는 의미로, Pora는 2004년 11월 21일 2차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재선거를 요구

구소(NDI), 미국 국제개발처(USAID)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소로스 재단, 국제르네상스 재단(IRF), 카네기국제평화 재단 등 민간단체 역시 우크라이나 혁명에 있어 야당을 지원하였다.

비교적 서방의 지원이 없었다는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서방이 지원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미국의 자유 지원법(Freedom Support Act)에 따른 지원의 일환으로 미국은 2004년 키르기즈스탄에 총 1,2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국립 민주주의 재단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 지원된 금액 역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키르기즈스탄의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를 통하여 편파성을 탈피한 대중매체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키르기즈스탄 내의 미국계 대학을 지원하여 미국으로의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고양을 도모하였다. 바키예프 대통령 역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었다.²⁷⁸⁾ 미국의 지원은 대중매체에도 손을 뻗어 혁명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가민주주의 연구소(NDI),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위한 연합(CDCS), 반부패시민사회(CSAC) 등과 같은 NGO들은 레몬혁명의 성공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IV. 민주화 이행론적 관점에서의 색채혁명

1. 이행론적 입장에서 색채혁명 분석

<표-3>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민주화지수²⁷⁹⁾

우크라이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Political Rights Score	4	4	4	4	3	3	3
Civil Liberties Score	4	4	4	3	2	2	2
Status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Free	Free	Free

그루지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Political Rights Score	4	4	4	3	3	3	4
Civil Liberties Score	4	4	4	4	3	3	4
Status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하는 수십만 군중 시위를 조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Pora의 핵심 요원들 역시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해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278) 이채문, 2005.6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과 친 서구 NGO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324

279) 프리덤하우스(<http://www.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1>), Score(최고지수:1, 최저지수:7), Status(Not Free, Partly Free, Not Free로 구분됨)

키르기즈스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Political Rights Score	6	6	6	6	5	5	5
Civil Liberties Score	5	5	5	5	4	4	4
Status	Not Free	Not Free	Not Free	Not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Partly Free

프리덤하우스에서 제공한 색채혁명 3국의 민주화 지수를 살펴보면 3국 모두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혁명 이후 민주화 지수에서 Free 등급을 받아 민주화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그루지야와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Partly Free 등급을 받아 민주화에 있어서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이행 측면에서 각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민주화의 이행론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독재 지배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야 한다. 즉, 독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민주화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셋째, 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인식 제고는 민주화과정에 있어 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정치 엘리트의 결정과 능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과정의 추진에 있어 정치 세력의 올바른 결정과 추진을 위한 능력은 중요요소이다. 다섯째, 기능화 되고 있는 국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은 국가제도의 재설계도 포함하지만, 선거제도, 의회·사법개혁 등의 제도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²⁸⁰⁾

독재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에 대하여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형태를 말한다. 즉, 1인 또는 소수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루지야의 경우 독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루지야의 장미혁명은 서방의 지원으로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사카쉬빌리 정부의 정통성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카쉬빌리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강력한 통치를 해야만 했다. 혁명 이후 그루지야에서는 집권당이 전 의석을 차지했고,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정부 관료를 임명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부정선거에 대한 불허에서 일어난 혁명은 결국 독재라는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를 탄생시켰다.

우크라이나는 혁명 이후 독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나누었으며, 우크라이나 내에서 권력독재를 견제한 엘리트 간의 다중심주의로 인하여 권력이 분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7년 9월 30일 총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내 정당들의 득표율 변동은 집권당의 독주를 막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어 가는 형태를 띠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정치제도(parliamentary - presidential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치체제는 독재로부터 멀어지고 있

280) David Rowley, 2001, "Interpretations of the End of the Soviet Union: Three Paradigms" p. 395~426

다고 볼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혁명이전 아카예프 정권의 독재적 성향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아카예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개헌을 통하여 입법부를 위축시키는 등의 대통령 권력을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에게 통제되었으며, 이런 상황의 일환으로 2000년 대선 전 아카예프의 경쟁자인 쿨로프가 투옥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²⁸¹⁾ 혁명이후 바키예프는 정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 정치적 주적인 쿨로프를 총리로 지명하여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졌다. 비록 새 정부가 기존 정치인을 바탕으로 유지되었으나 아카예프 시기 독재체제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독재에서 다소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는 도입, 발전, 공고화 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이러한 단계적 성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정치체제 개혁 등을 통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형적인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미숙한 정치체제와 이에 대한 개혁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부재 측면에서 민주주의 도입 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루지야는 독재체제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다른 정치·경제적 원인들과 더불어 선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그루지야 민주주의의 현 주소는 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3국의 색채혁명은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카운터 엘리트들과 합심한 국민들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3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거는 민주주의로의 진행에 있어서 기본적 토대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치 엘리트의 능력과 관계하여 우크라이나는 유셴코와 티모셴코, 그리고 야누코비치의 삼각 대립과 화합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비록 정권의 탈취 및 유지를 위하여 정치 엘리트 집단 간 반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왔으나 다중심주의적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 유셴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의 조합은 차기 정권을 노리는 티모셴코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의 국가였던 사실을 인지했을 때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적 움직임은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바키예프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쿨로프와의 협력적 관계를 이루었고, 정권유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략적 협력을 꾀했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비해 뒤지는 엘리트의 능력을 보였다. 그루지야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독재적 성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헌법 개정을 통한 권한 배분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 제도는 기능하고 있다. 국가 제도에 대한 재설계와 관련하여 그루지야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구 소련 시대의 정치적 유산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281) 김인, 2007,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정책과 관계” 아태 쟁점과 연구 p. 83-84

<표-4>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민주주의 이행지수²⁸²⁾

	탈독재	단계적 민주화	선거의 중요성	정치엘리트의 능력	국가제도의 기능성
그루지야	X	△	○	X	X
우크라이나	○	○	○	○	△
키르기즈스탄	△	△	○	△	X

<표-4>는 본고를 바탕으로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탈독재, 단계적민주화, 선거의 중요성, 정치엘리트의 능력, 국가제도의 기능성의 달성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2. 이행론적 입장에서 색채혁명의 한계점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색채혁명 이후 집권한 정치엘리트들은 구 권위주의체제와의 깨끗한 단절과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구소련해체이후 구 공산당 당원 출신들이 계승 정당들의 집권에 성공한 경험과 더불어 사회주의체제에서 저발전 되어있던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순탄치 않았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중개집단(intermediary association)이 미처 발전되어 있지 못한 정치적 공백상태를 지배엘리트들이 다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독점의 환원은 아니지만, 정치적 독점의 완전한 해체도 아닌 상태이다.²⁸³⁾ 혁명 이후 지배엘리트들이 각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는 각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의 각국마다 그 지배엘리트들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사회주의 체제가 모두 같은 체제가 아니었듯이 정치적 독점의 해체정도에 있어서도 각 국가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샬바(Shalva)는 모든 혁명에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루지야에서는 혁명이후에도 헌법에 의해서가 아닌 집권정당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유혈사태와 군대를 통해 정치적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²⁸⁴⁾ 이러한 상황은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이 지닌 “동시성의 딜레마”가 각 국가들의 민주적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남아메리카나 남부유럽의 민주화 이행과는 달리 정치적인 개혁과 경제적인 개혁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인 개혁, 즉 민주화 이행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1989년에 제기되었었는데, 그 주장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그라냥과 클람킨은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장기간에 걸친 계몽권위주의의 과도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⁵⁾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민주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피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미숙하고 민주적

282) 본고를 바탕으로 구성.

283) 이채문 ,2007.2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84) Shalva. 2005, "After November 2003 : Achievements And Trends".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p. 1

285) Андраник Мигранян. 1989,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7

인 정치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민주화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표출과 집단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색채혁명 이후의 각 나라의 상황을 형식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선거가 이루어지고 의회민주주의가 형성되고, 또한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점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를 정치·사회·경제적 독점의 결합에서 그 결합의 해체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는 제한적 민주화로 정의된다. 즉, 실질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정치적 독점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독점이 사라졌고 다시 사회주의적 지배로 되돌아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적 독점으로 변형되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제도정치의 발전을 동시에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V. 결론

민주화 지수에서 나타났듯이 그루지야를 제외한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은 점진적으로 민주화에 가까워졌다는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각국의 민주화에 대하여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민주화 지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각 국가들은 보다 민주주의 쪽으로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유사민주주의의 형태로 특수하게 변모되어 고착화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제기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색채혁명이 발생한 3국의 민주주의 진행과정을 이행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민주화 이행론의 성립에 있어서 5가지 주된 전제조건과 결부시켜 각 국가들에서 일어났던 색채혁명을 살펴 본 바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행론적 시각에 대부분 부합하는 한편, 그루지야와 키르기스스탄은 이행론적 시각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살필 수 있듯이 1980년대 중반이후 지속되었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 진행되었고,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선상에 놓였던 점에서 탈권위주의화와 민주화의 한계성에 대해 지적되었으나 민주화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²⁸⁶⁾

이처럼 현재 색채혁명 국가들에서는 부적절한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혁명 시기 잠시나마 권위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할 경우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힘의 사용이 배제된 경쟁과 포용성이 높은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과 참여 보장에 충분한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²⁸⁷⁾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루지야를 제외한 2국에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들은 일정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도입

286) 문병주. 1989,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이행론에 대한 검토” 동향과전망 97년 봄호(통권 제33호) p.277-278

287) Diamon, I., J. J. Linz & S. M. Lipset. 1989,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p.16

된 ‘조숙한 민주주의(premature democracy)’라고 규정²⁸⁸⁾했던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조숙한 민주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3국에서 행해진 민주화 혁명이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전략적 선택에 의한 도구로써 이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혁명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하나의 역사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민주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유사민주주의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향후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루지야의 경우 현재는 독재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현 정권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차기 정권에서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채혁명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이행론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키르기스스탄과 그루지야의 경우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색채혁명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일련의 민주화 이행과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론적 관점에서 색채혁명을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남겨놓은 유산을 탈피하여 민주주의 제도정치를 발전시켜야만 하면 이들 국가들에서는 남아메리카나 남부유럽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이행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변환이 필요한 구소련 국가들이 향후 3국에서 발생한 색채혁명과 일련의 민주화 전제들을 기준삼아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88)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p.17-19

참고문헌

- Андраник Мигранян.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7(1989)
Москва принимает вызов "цветных" революций .Андрей Рябов,Pro et Contra.
№.1 (2005)
- Alena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Univ. Press, (1988)
- Baloyra, Enrique ed. Comparing New Democracies: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Mediterranean Europe and the Southern Cone. Boulder : West-view. (1987)
- David Rowley "Interpretations of the End of the Soviet Union: Three Paradigms" (2001)
- Diamon, I., J. J. Linz & S. M. Lipset.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1989)
- Ethier, Diane ed.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90)
- Fareed Zakaria, "The Rise of Illiberal Democracy," Foreign Affairs, Vol. 76 (1997)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 Avon Books (1992)
- Guillermo O'Donnell, "Illusions about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7 (1996)
- Jerry Hough/Merle Rainsod,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Harvard Univ. Press, (1979)
- Juan Linz/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London: Johns Hopkins Univ. Press, (1966)
- Klaus von Beyme, Systemwechsel in Osteuropa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1994)
- Huntington, Samuel.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 London :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Philip Roeder, Red Sunset, The Failure of Soviet Politics ,(1993)
- Philip Roeder, "Varieties of Post-Soviet Authoritarian Regimes," Post-Soviet Affairs, Vol 10 (1994)
- Philippe Schmitter with Terry Lynn Karl, "The conceptual travels of transitologists and consolidologists. How far to the east should they attempt to go," Slavic Review, Vol. 53, No. 1 (1994)
- Robert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1989),
- Roger Markwick, "A Discipline in Transition? From Sovietology to 'Transitology',"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 12 (1996)
- Scott Mainwaring, et. al.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Schopflin, P.A , The End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ternational Affairs. Vol. 66. (1990)
- Sergei Medvedev, "Post-Soviet Development. A Regional Interpretation,"

Shalva. "After November 2003 : Achievements And Trends" .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2005)

Share. Donald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Transition through Transac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9, no. 4, (1987)

Simon Kordonskij, "The Structure of Economic Space in Post-Perestroika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Market," (1995)

Stepan. Alfred. 'Paths toward Redemocratiz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1986)

Stephen F. Cohen. "Who Lost Russia?" The Nation. Vol. 267. No. 11 (October 12. 1998)

Thomas Carother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Volume 13, (2002.1)

"Ukraine Under Kuchma: Back to 'Eurasia'?" RFE/RL Research Report. Vol.3 No.32 (1994)

Valerie Bunce, "Should Transitologists Be Grounded?" Slavic Review, Vol. 54 (1995)

Wolfgang Merkel, "Theorien der Transformation. Die demokratische Konsolidierung postautoritärer Gesellschaften" (1996)

Wolfgang Merkel/Aurel Croissant, "Illiberale Demokratien im Wechselspiel von formalen Institutionen und informellen Regeln," (2000)

강혜련 “흑해권의 정치적 민주화 지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11)

고재남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2005.7)

김인 “키르기즈스탄의 대외 정책과 관계” 아태 쟁점과 연구 (2007)

김용진 외 3명 "현대정치학서설-연구의 영역·대상·맥락-" 세영사 (2004. 2)

문병주 “한국의 민주주의로의 이행론에 대한 검토” 동향과전망 97년 봄호(통권 제33호) (1989)

박태성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슬라브연구 제23권 2호 (2007)

배정환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공식 정치과정: 그 이론과 고찰”

이채문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수출용혁명론” 대한정치학회보 제14집 3호 (2007.2)

이채문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과 친 서구 NGO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05. 6)

이충진 “칸트의 국가론에 관한 예비적 연구” (2000.3)

이흥균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사회·경제적 독점의 해체 과정”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2007)

이흥섭 “<러시아 초점> 키르기즈스탄 사태, 또 다른 우크라이나인가?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5. 4)

임경훈 “비교 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의 탈공산주의 이행” 임경훈 서울대학교 (2000)

장병옥 “중아시아 국제정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7)

정우량의 월드워치 인물과 사상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 ‘거대한 체스판’ 유라시아 패권 싸움” (2005.02)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시장화지수 (<http://www.heritage.org>)

프리덤하우스: 민주화지수 (<http://www.freedomhouse.org>)